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중앙보훈병원과 ‘무장애 관광 실현 위한 휠체어 공유 서비스’ 협업

조상원 기자 71-sangwon@hanmail.net

입력 : 2024-08-06 15:35:01 수정 : 2024-08-06 15:34:58 지면 : 2024-08-06 (15면)

기자의 다른기사 보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가 6일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한 휠체어 공유 서비스’ 사회 공헌활동에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가 6일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한 휠체어 공유 서비스’ 사회공헌활동에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업은 행정안전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이뤄졌으며,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로부터 6대의 휠체어를 기증받아 광천선굴, 평창자연휴양림, 옛 대관령휴게소 등 평창지역 주요 관광시설에 배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히 휠체어를 기증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수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무장애 관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이용객이 편안하게 즐길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상원 기자 71-sangwon@hanmail.net

입력 : 2024-08-06 15:35:01 수정 : 2024-08-06 15:34:58 지면 : 2024-08-06 (15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 추천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